

내가 아주 보고싶은 소연이에게-

미국에서=안녕! 너무 많이 보고 싶다.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니? 우리 연락 안 한지 너무 오래 됐다. 여기는 다 좋아, 오빠는 대학 졸업 했고,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어. 엄마 하고 아빠는 열심히 일 하셔. 엄마가 너한테 "빨리 돈 모아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사" 라고 전해 달라고 하신다. 이모 하고 이모부는 잘 지내시니? 소라도 잘 하고 있지? 전에 봤을때 커서 미국 상의 의원이 될거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정치 공부하고 싶데?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어학원에서 소라하고 비슷한 어린애가 있다. 다섯 살에 앞 이빨 없는 말쑥 꾸러기인데, 커서 대통령 되고 싶데 귀엽지?

저번주에 캘리포니아에서 전화 왔어. 너네 둘이 이제 말 안한다고 얘기 했다. 화해 칼리가 화해 하자고 했대며, 왜 안하니? 싸우냐고 바빠서 우정을 잊어버려서? 나는 너네 둘 다 너무 보고 싶어.

야, 빨리 미국에 와라.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해. 학교는 미국이 확실히 나아. 기숙사도 재미있고 친구들 많이 만들었어. 집에 간지 두달 됐는데, 저번주부터 향수병 걸린거 같은 느낌이 들어. 공부하고 일 하느냐고 바빠서 집에 갈 시간이 별로 없어. 엄마가 요즘 일요일에 만나서 점심 같이 먹으로 가고 싶어 하셔.

그만 써야돼겠다. 답장 꼭 써야 된다!

정희연가이가